

	<b>보도자료</b>	2026. 5. 21.(목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	<b>농업기술원</b>	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	현광철	☎ 760-7801
업무담당자		강지호	☎ 760-7842	
홍보담당자		양지순	☎ 760-7514	

## 제주 감귤하우스를 '재생에너지 농장'으로..지립 기반 만든다

- 태양광 발전 전력 저장·활용으로 에너지 절감형 시설농업 모델 구축 -

- 서귀포 감귤 농가가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햇빛으로 직접 생산해 쓰는 시대가 열린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설농업의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‘태양광·에너지저장장치(ESS) 연계 재생에너지 100%(RE100) 감귤생산모델 시범사업’을 본격 추진한다.
  - 최근 시설 재배지에서 고온기 환기 시설과 자동화 장비 가동이 늘면서 농가의 농업용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.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시설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(6kW)와 ESS(20kW급)를 설치해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.
  - 낮 동안 생산한 전력은 시설 운영에 즉시 사용하고, 남은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야간이나 정전 시 환풍기와 자동개폐기 등 주요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활용된다.
- 센터는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전력 사용량 변화와 에너지 절감,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 기존 농업용 전력 사용량과 태양광 발전량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제주형 RE100 감귤 생산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.
  
- 강지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는 “이번 사업은 감귤 시설 재배 현장에 재생에너지 활용 체계를 적용하는 시범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” 며 “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제주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” 고 말했다.